

INMO YANG

DASOL KIM

DUO RECITAL



Objects for Interior life

HERMÈS
PARIS



Armchair in hand-painted papier mâché.

양인모 & 김다솔 듀오 리사이틀

INMO YANG & DASOL KIM
DUO RECITAL

2023년 4월 7일 (금)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7:30PM Friday, April 7, 2023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바이올린, 양인모

Inmo Yang, Violin

피아노, 김다솔

Dasol Kim, Piano

이들의 비범한 음악적 고찰

양인모 | 김다솔

듀오 리사이틀

2023.4.7 FRI 7:30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베베른 1883-1945
Austria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네 개의 작품, 작품번호 7 5'

A. Webern

Vier Stücke für Violine und Klavier, Op. 7

- I. Sehr langsam 매우 느리게
- II. Rasch 빠르게
- III. Sehr langsam 매우 느리게
- IV. Bewegt 요동치듯이

브람스 1833-1897
Germany

바이올린 소나타 제1번 G장조, 작품번호 78 33'

J. Brahms

Sonate für Violine und Klavier Nr. 1 G-dur, Op. 78

- I. Vivace, ma non troppo 빠르고 생기있게, 그러나 너무 지나치지 않게
- II. Adagio 차분히 느리게
- III. Allegro molto moderato 매우 빠르면서도 알맞게

I N T E R M I S S I O N

CREDIA

푸러 1954-
Austria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가곡 8'

B. Furrer

Lied für Violine und Klavier

베토벤 1770-1827
Germany

바이올린 소나타 제7번 c단조, 작품번호 30-2 25'

L. v. Beethoven

Sonate für Violine und Klavier Nr. 7 c-moll, Op. 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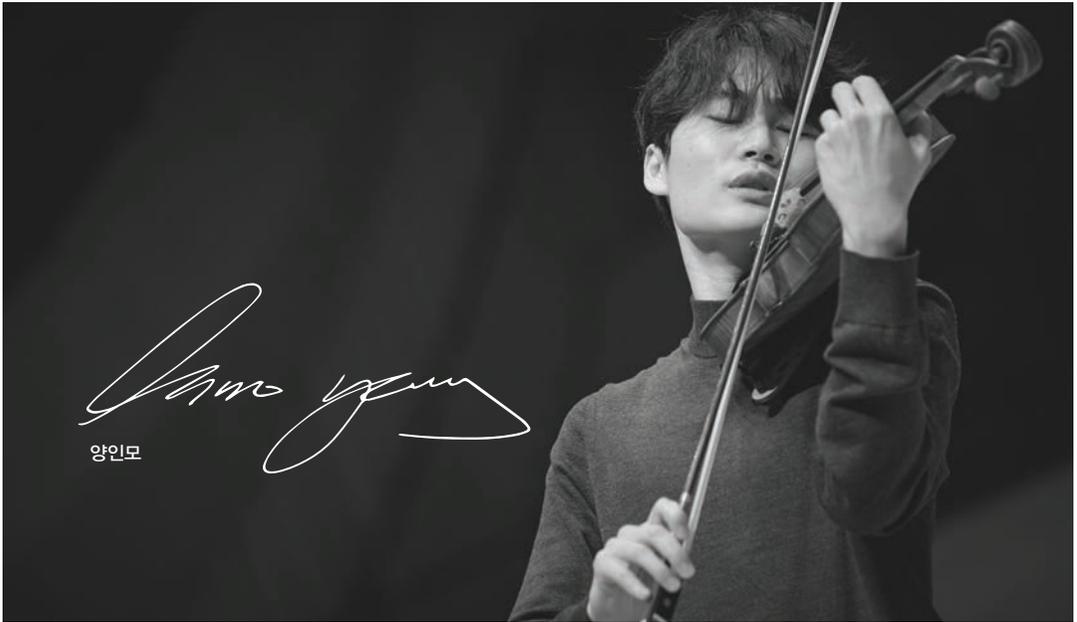
- I. Allegro con brio 빠르고 생기있게
- II. Adagio cantabile 차분히 느리게 노래하듯이
- III. Scherzo 스케르초
- IV. Finale : Allegro-Presto 피날레 : 빠르게-급하게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onic devices.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PROGRAM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청중 여러분, 이번 저희 듀오 리사이틀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년 전 베를린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전까지 악보로만 접하던 바흐, 베토벤, 멘델스존, 브람스 등의 작곡가들을 보다 인격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그들이 살았던 땅에서 그들의 음악을 느낄 수 있는 사치에 대한 답례이자, 클래식 음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독일어권 작곡가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가능한 직관적으로 체험하려는 시도입니다. 제가 이 곳에서 얻은 가장 큰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클래식 음악이 사실은 대단히 어색하다는 것입니다.

베토벤은 시도 때도 없이 악센트를 남발하여 듣는 이를 놀라게 하고, 멘델스존은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 하면 조심스레 입을 닫고, 슈베르트는 자기도 모르게 주제와 한참 벗어난 곳에서 길을 잃습니다. 우리는 악기를 배울 때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럽게 들릴까?’라는 질문을 꽤 자주 합니다. 덜 어색하고 더 수궁할 수 있는 해석을 찾으려 하죠. 하지만 음악은 자연스러워져야할 대상이 아닙니다. 어색한 것이야말로 작곡가가 표현에 있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러움보단 어색함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오늘 공연에서 들으실 작곡가들의 사랑, 낭만, 투쟁, 포기, 위로 또한 완벽한 이상이 아닌 현실의 불편한 한계입니다.

‘오늘은 꼭 그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겠어’라고 마음먹고, 그것을 가장 매끈하게 전달할 방법을 머릿속에서 수없이 리허설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어색한 순간들은 우리의 기억에 스며들어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인 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발이 없어질 때까지 두 눈으로 똑바로 쳐다볼 수 있을 때 아이디어를 넘어 철학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주만큼은 ‘자연스러움’이란 가장 인위적인 곡선을 지우고, 위대한 인간의 어색한 테두리를 그리는 경험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다솔입니다.

어느 한 추운 겨울날, 실내악 무대에 인모와 처음으로 함께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행복하고 황홀했던 실내악 공연 중 하나로 기억되는 그날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마치 어제 일 같은데 어느새 3년 하고도 몇 개월이 더 지났네요. 팬데믹의 영향으로 한참 그리워해야만 했던 무대라는 곳을 천천히 다시 찾고, 연주자로서의 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했던 2022년 봄에 인모에게 보낸 메시지 한 통으로 저희의 듀오는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작곡가의 작품을 위주로 함께 음악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여 작년 초겨울, 베를린에서 처음으로 양인모와 김다솔의 듀오 리사이틀이 있었습니다. 빼곡히 채워진 베를린의 공연장 분위기는 따뜻했고, 청중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인모와 함께 독일과 스위스의 청중들을 만나고, 이제 한국의 청중 여러분을 이렇게 봄을 마주하는 시기에 만나게 되어 너무 설레고, 그리고 또 반갑습니다.

훌륭한 작품과 함께하는, 저에게 큰 의미가 있고 소중한 기억이 될 공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양인모와 김다솔의 듀오 리사이틀은 19-20세기 빈에서 활동했던 작곡가들의 음악으로 채워졌다. 고전을 완성한 베토벤과 고전을 이어받은 브람스, 그리고 새로운 고전을 만든 베베른과 오늘날의 현대음악을 이끌고 있는 푸러까지. 과거의 한 시절이 아닌 오늘날에도 살아 움직이는 고전의 생명력으로 그 안에 담겨있는 인류의 목소리를 전한다.

안톤 베베른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네 개의 작품, 작품번호 7

Anton Webern

Vier Stücke für

Violine und Klavier, Op. 7

20세기 초, 인간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는 프로이트의 초자아 이론은 내면에 대한 관심을 폭발적으로 불러일으켰다. 이로부터 영향을 받은 미술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심리를 표현하기 위해 대상을 단순화하거나 왜곡했으며, 심지어 비현실적인 이미지를 그렸다. 이러한 사조는 ‘표현주의’라고 불렸으며 칸딘스키, 클레, 피카소, 말레비치, 몽크 등이 속했다.

표현주의 화가이기도 했던 작곡가 쇤베르크는 빈의 예술가 사회에 불어닥친 이러한 변화의 한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음악은 근본적으로 대상을 재현하지 않는 추상 예술이기 때문에, 미술과 같은 개념으로 표현주의를 적용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조성음악을 전통적인 구상 예술로 보고, 조성음악의 근본인 으뜸음을 제거하고 협화음과 기능화성을 무시하는 시도를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성감이 결여된 음악은 인간의 심리를 그리는 표현주의적 관점에서 이해되었으며, 이를 이후의 양식화된 12음 기법과 구분하여 ‘표현주의 무조음악’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쇤베르크의 음악은 제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안톤 베베른(1883-1945)이다. 그는 쇤베르크로부터 배우면서 그의 시도를 실시간으로 접했고, 여기에 자기 생각을 더하여 자신만의 음악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베베른은 쇤베르크보다도 조성과의 거리가 더욱 멀어 보였고, 특히 프레이즈가 지나치게 짧아 선율의 인지를 더욱 낮설게 했다. 그의 음악은 익숙한 음악 문법과 차이를 갖지만, 오히려 감각적이고 타격감 있는 제스처로 기악 음악만이 가능한 표현의 지평을 넓혔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네 개의 작품, Op. 7>(1910)은 이러한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다. 선율 단편들은 단 몇 개의 음정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지만 약음기, 피치카토, 하모닉스(배음을 만들어 맑은 고음을 내는 연주법), 콜레노(활대로 연주), 브릿지 위, 지판 위 등 다양한 연주법으로 만든 서로 다른 음색은 그들을 성격이 다른 제스처로서 분명하게 구분한다. 그래서 ‘음색 작곡법’의 범주로 이해되기도 한다. 또한 ‘부드럽게’, ‘섬세하게’, ‘또박또박하게’, ‘간신히 들리게’, ‘내쉬듯이’ 등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적혀있어 서사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단편들을 하나의 선율로 간주한다거나, 화음을 반주로 인식한다면 곧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여러 등장인물의 심리적인 독백 혹은 감정적인 대화로 상상해보자.

1악장 ‘매우 느리게는 약음기를 끼운 바이올린의 완전5도 협화음으로 조용히 시작한다. 하지만 피아노의 화음 이 이에 부딪히자 불안이 엄습한다. 자극받은 바이올린은 미끄러지듯이 새로운 길을 찾아가지만, 후반부에서

바이올린은 갈피를 잃고 활대로 연주하며 제자리에서 맴돈다. 피아노는 바이올린과 다른 리듬으로 무심히 화음을 연주하다 잠들 듯 마무리한다.

2악장 '빠르게'는 매우 극적으로 진행된다. 바이올린은 쓰아붙이는 듯한 신경질적인 제스처를 보이다가도 잠시 긴장을 풀고 서정적인 선율을 연주하다가도, 단편적인 제스처로 자극하는 등 변화무쌍하게 진행된다. 피아노는 이에 동조하기도 하고 맞대응하기도 한다.

3악장 '매우 느리게'는 피아노가 만드는 신비한 아우라 속에서, 바이올린은 마치 흔적을 쫓듯이 여러 제스처들을 들릴 듯 말 듯 건조하게 연주한다.

4악장 '요동치듯이'는 바이올린이 야심차게 제스처를 취하지만, 피아노는 무심하게 화음을 연주하며 외면한다. 바이올린은 하모닉스와 피치카토로 대응하나, 마지막에 체념의 한숨을 내쉬듯 브릿지 위에서 두 번의 아르페지오를 연주하며 사라진다.

요하네스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제1번 G장조,
작품번호 78

Johannes Brahms

Sonate für Violine und Klavier
Nr. 1 G-dur, Op. 78

젊은 시절 요하네스 브람스(1833-1897)는 유독 바이올린 곡만큼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작곡해둔 바이올린 소나타들도 모두 폐기해버렸다. 슈만과 그의 제자 알버트 디트리히(Albert Diedrich)와 함께 요제프 요아힘(Joseph Joachim)을 위해 공동 작곡한 <F-A-E 소나타>(1953) 중 브람스가 맡은 3악장 스케르초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초기 바이올린 독주곡이다.

그러다 1878년에 사라사테의 연주를 듣고서, 그의 마음에 바이올린 독주곡에 대한 열망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브람스는 그해 여름에 뤼르차흐(Pörschach am Wörthersee)에서 바이올린 협주곡 작곡에 착수했으며, 그해 12월에 초연까지 성사시켰다. 그리고 협주곡을 작곡하면서 간간히 스케치해둔 <바이올린 소나타 1번>(1879)도 이듬해 여름에 완성했다. 협주곡을 먼저 완성하느라 늦어지기도 했지만, 시즌 중에는 지휘자, 피아니스트, 예술고문 등의 활동을 해야 했기에, 차분하게 작곡에 집중할 수 있는 다음 여름휴가를 기다려야 했다. 그래서 그의 후기 곡들은 편안한 휴식 가운데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정취 속에서 작곡되어 평온한 분위기로 가득하며, 또한 여러 지인과의 친밀한 만남에 따뜻한 마음도 녹아있다. 브람스는 <바이올린 소나타 1번>을 완성한 직후 요아힘에게 가져가 함께 첫 연주를 했으며, 공개 초연은 그해 11월 8일 빈에서 로베르트 헤크만과 그의 부인인 마리 헤크만-헤르티히의 연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곡은 '비 소나타'라고 불리기도 한다. 3악장의 첫 주제를 <여덟 개의 노래, Op. 59>(1873) 중 세 번째 곡인 '비의 노래'(Regenlied)에서 가져왔기 때문인데, 사실 이 노래의 특징적인 장-단 리듬과 물결과 같이 오르내리는 리듬이 소나타 전반에 사용되어 그 정서가 곳곳에 스며있다. 혹시 비 오는 날에 작곡했던 것은 아닐까? 형식을 중시했던 평론가 에두아르트 한슬릭은 브람스가 특별히 좋아하는 노래라서 무의식적으로 유사하게 만들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어찌 되었든 이 소나타는 '비의 노래'와 같이 감상적이면서도 극적이다.

특히 이 곡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이전 악장에서 사용된 주제를 다시 사용하여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2악장에는 1악장의 악상들이 재등장하며, 3악장 시작 부분에는 1악장의 첫 주제가 더욱 빠르고 불안하게 변형되었다. 그리고 2악장의 첫 주제도 3악장에서 바이올린의 더블스톱(중음기법)으로 다시 나타난다. 이러한 ‘순환 형식’(cyclic form)은 낭만시대에 유행했던 형식으로, 악곡의 통일성과 서사적인 효과를 부여한다.

1악장 ‘빠르고 생기있게, 그러나 너무 지나치지 않게’는 감상적인 피아노의 화음 연주 위에서 바이올린의 서정적인 제1주제가 장·단 리듬으로 연주된다. 피아노는 빗줄기가 거세지듯 아르페지오로 움직임이 커지면서 곧 단조로 바뀌어 제2주제가 제시된다. 이 두 주제를 중심으로 소나타 형식으로 전개되며, 다양한 변화와 부속 선율들로 극적이고 흥미진진하게 진행한다.

2악장 ‘차분히 느리게’는 슈만의 막내아들인 펠릭스가 사망한 직후에 작곡되어서인지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다. 특히 중간 부분의 비장한 장·단 리듬은 장송행진곡을 연상시킨다.

3악장 ‘매우 빠르면서도 알맞게’는 ‘비의 노래’ 선율의 첫 다섯 마디가 그대로 연주되며 시작한다. 두 번째 주제는 장·단 리듬이 인상적이지만, 정서적으로 제1주제와 비슷하여 구분이 쉽지 않다. 하지만 제3주제는 산뜻한 기분의 장조로 바뀌어 중음기법(더블스톱)으로 연주한다. 이 세 주제를 바탕으로 론도 형식으로 진행하며, 마지막에 조용히 마무리한다.

베아트 푸러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가곡

Beat Furrer

Lied für Violine und Klavier

1970년대 후반은 새로운 소리를 찾는 탐구적인 접근보다는 포스트모더니즘과 맞물려 고전 양식이나 전통적인 음향, 신낭만주의 등이 주목을 받고 있었다. 이제 ‘새로운’ 것 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는 데에 점차 집중했다. 물론 이러한 때에도 20세기의 음향을 사용하며 우리 시대의 이정표를 세우고자 노력하는 음악가들이 있었으니, 베아트 푸러(1954-)는 그러한 작곡가로서 가장 돋보이는 인물 중 한 사람이었다.

푸러는 독일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스위스의 샤프하우젠(Schaffhausen) 출신이다. 그는 여느 대가들처럼 어린 시절에는 그리 두각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21세 때인 1975년에 빈으로 이주하여 작곡과 지휘를 공부한 이후, 서서히 주목을 받았다. 1985년에 유럽의 주요 현대음악 단체 중 하나인 클랑포럼 빈(Klangforum Wien)을 창립하여 현재까지 이 단체를 이끌고 있으며, 1991년부터는 그라츠 음대에서 작곡을 가르치고 있다.

그의 음악은 어떤 경향이나 범주로 특징짓기는 어렵지만, 20세기에 개발된 다양한 악기 연주법을 자유롭게 구사하며 다양한 음색을 만들고 역동적인 리듬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리듬이 형성하는 에너지로 세계관을 형성하고 여러 음색들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점멸한다. 이러한 그의 음악은 음악적인 효과가 뛰어나고 다이나믹해서 극적이고 서사적인 흐름을 만든다. 그러면서도 일관된 정서를 유지하여 집중도가 높다.

여기에는 그의 음악을 ‘콘셉트 뮤직’(concept music)이라고 부르는 이유와 관련이 있다. 말 그대로 각각의 작품은 각각의 고유한 콘셉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콘셉트의 주제는, 유형의 구체적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무형의 개념이 될 수도 있으며, 순수한 음악적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를 콘셉트에 맞게 나름의 이야기로 풀어간다.

푸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가곡>(1993)의 콘셉트는 슈베르트이다. “바이올린과 피아노는 같은 박자에 도달하지 못한다. 대신에, 아주 미묘하게 다른 템포로 서로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한다. 소리는 추억을 붙잡고 있는 것 같다. 직접 인용하지는 않지만, 슈베르트의 노래 ‘넷가에서’(겨울 나그네)의 시작 모티브가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듯하다.” 푸리의 이 말을 보니, 슈베르트보다는 추억이 콘셉트라는 생각이 든다. 피아노 반주는 완전4도를 반복하면서 무중력 상태로 만들고, 점차 간격이 넓은 협화음으로 비어있는 공간을 만들며 몽환적인 세계를 형성한다. 바이올린은 음표마다 트레몰로, 하모닉스, 스타스토(지판 위에서 연주), 솔폰티첼로(브릿지 가까이에서 연주), 피치카토 등 다른 주법으로 음색을 다르게 한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다른 템포와 서로 다른 박자로 진행하는데, 마치 서로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그들은 서로를 모방하며 교감하고 달한 세계에서 맴돈다. 그래서 베베른처럼 음색의 변화로 진행되는 음색 선율로 들리기도 한다. 그들의 진행 속의 변화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익숙해지고, 어느덧 감상자도 그 세계에 갇힌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모호한 영원성을 느끼게 한다. 앞서 언급한 푸리의 음악적 특징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모든 펠드면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영원성의 명상적 정서는 푸리에게는 분명 매우 드문 것이다.

루트비히 판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제7번 c단조,
작품번호 30-2

Ludwig van Beethoven

Sonate für Violine und Klavier
Nr. 7 c-moll, Op. 30-2

들을 수 없는 음악가라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을 꼽아본다면 베토벤(1770-1827)은 단연 상위에 오를 것이다. “유령을 본 것처럼 어둠 가도 약해진 청력으로 겁에 질리곤 하네. 그래서 나는 모두로부터 달아났지. 사람들은 분명 내가 인간혐오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할 거야. 확실히 그건 아닌데. 이러한 변화가 나를 사랑하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매력적인 소녀도 떠나가게 했어.” 1801년 11월 16일에 친구인 게르하르트 베겔러(Gerhard Wegeler)에게 보낸 편지는 이듬해에 유서로 바뀌었다. “이런 일은 나를 절망으로 인도했다. 내 자신의 삶을 끝내는 데 아주 약간만 부족할 정도이다. 그것은 나를 놓아주지 않는, 오직 예술뿐이다.” 1802년 10월 6일로 기록되어 있는, 조카인 칼과 요한에게 부치는 ‘하일리겐슈타트 유서’이다. 이 유서는 수신자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베토벤은 다행히 거사를 치르지 않았지만, 모든 문장이 그가 느꼈던 괴로움을 오롯이 전달한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은 그의 성격을 바꿔놓았다. 베토벤은 본래 순진하고 너그러워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베겔러와 베토벤의 제자인 페르디난트 리스(Ferdinand Ries)는 그가 갑자기 매우 화를 냈

다고 입을 모은다. 그리고 작가인 루트비히 티크(Ludwig Tieck)는 “갑자기 이상한 마력 같은 것에 사로잡혔는지, 술집에서 필쩍 뛰더니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라고 말하며 다혈질에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언급했다. 이것은 예민한 감각의 만용이 아니라, 들리지 않는 고통 때문이었다. 바로 그 해에 작곡된 ‘작품 30’ 중 두 번째 곡인 <바이올린 소나타 7번>(1802)에는 이러한 베토벤의 심리 상태가 반영되어 있는 것 같다. 으르렁거리는 듯한 첫 시작부터 음악 너머에서 무엇인가 말하려는 것 같다.

그런데 ‘작품 30’의 세 곡은 일면식도 없는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드르 1세에게 헌정했다. 그가 프리메이슨의 영향을 받아 계몽 군주를 자처했기 때문이었다. 베토벤도 프리메이슨 회원들과 가까이 지냈기에 그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작품 30’에 프리메이슨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숫자 ‘3’과 관련된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작곡을 시작할 때부터 그를 헌정자로 염두에 두었을지도 모른다. 작품번호 30, 세 작품, 첫 곡은 세 개의 샹, 둘째 곡은 세 개의 플랫, 첫 곡과 셋째 곡은 세 악장 등.

그런데 베토벤은 경제적인 지원을 원할 때,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남성 귀족에게 헌정했기 때문에 어떤 보답을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알렉산드르 1세로부터 어떤 답도 듣지 못했다. 그런데 1814년 11월 29일, 빈 회의를 위해 빈을 방문한 러시아 황제 부부가 기념 음악회에 참석했고, 여기서 연주된 베토벤의 작품을 듣고 크게 감동하여 그에게 금화 200두카트를 하사했다. 그리고 황제의 여동생이 베토벤을 따로 불러 그 해에 황비에게 헌정한 <폴로네이즈, Op. 89>(1814)에 대한 보답으로 50두카트를 주면서, 이전에 오빠에게 헌정한 바이올린 소나타에 대한 보답으로 100두카트도 함께 전달했다. 이렇게 12년 만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1악장 ‘빠르고 생기있게’는 피아노가 먼저 제1주제를 연주하며 시작한다. 짧은 동기를 두 번 반복하여 강한 인상을 주는 것은 <현악사중주 1번>이나 <운명 교향곡> 등 베토벤의 작품에서 간혹 볼 수 있는데, 음악을 극적으로 만드는 그의 특징이다. 요동치는 피아노 반주와 강렬한 화음 연주를 지나면, 군대 행진곡과 같은 부점 리듬과 스타카토가 인상적인 제2주제를 만나게 된다. 이 두 주제가 특징적이지만 기술적으로 단순한 것은 표현보다는 서사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주제를 바탕으로 소나타 형식으로 진행한다.

2악장 ‘차분히 느리게 노래하듯이’는 피아노가 여유 있게 주제를 연주하며 시작하고, 이어서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같은 선율을 연주한다. 느린 악장에서 이렇게 두 악기가 더블링으로 연주하는 것은 흔치 않은데, 사랑했지만 이루어질 수 없었던 ‘매력적인 소녀’ 줄리에타와 함께했던 시간을 상상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3악장 ‘스케르초: 빠르게’는 꾸밈음과 스타카토, 부점 리듬으로 경쾌한 느낌을 주는 선율로 시작한다. 트리오(중간 부분)는 피아노의 삼연음 리듬을 바탕으로 하며, 바이올린의 선율은 비교적 여유가 있으나 스타카토 연주로 경쾌함을 유지한다.

4악장 ‘피날레: 빠르게-급하게’는 스타카토로 끊어 연주하는 제1주제를 제시하면서 시작한다. 단 두 마디 안에서 피아노부터 포르티시모까지 단숨에 커지는 극적 효과가 인상적이다. 제1주제를 두 번 반복하면, 차분한 제2주제가 잠깐 얼굴을 내민다. 다시 제1주제가 연주된 후, 위아래로 까딱까딱 움직이는 제3주제를 연주한다. 이 세 주제를 바탕으로 론도 형식으로 진행한다.

글 | 송주호(음악 칼럼니스트)

PHILIPPE HERREWEGHE & THE ORCHESTRE DES CHAMPS-ÉLYSÉES



© JACQUES HERREWEGHE

© ARTHUR PEQUIN

필리프 헤레베허 & 상젤리제 오케스트라

모차르트 교향곡 41번 '주피터' |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

2023.5.17 WED 7:30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CREDIA MUSIC & ARTISTS

티켓
R석 18만원 | S석 15만원 | A석 12만원 | B석 8만원 | C석 4만원

예매
Club BALCONY | 티켓링크 | 인터파크 티켓 | 예술의전당

투어
5.20 [토] 3PM 부천아트센터



CREDIA

© 최남현 스튜디오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Inmo Yang

Violinist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는 2022년 제12회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의 우승자이다. 그는 또한 마그누스 린드베르크의 위촉곡으로 최고 연주상(해석상)을 받았다. 심사위원장 사카리 오라모는 “이번 콩쿠르 우승자인 양인모는 압도적이었다. 그는 음악적으로나 바이올리니스트로서 훌륭한 점들이 너무나 많다. 그의 연주는 전혀 과도함이 없이 노래하듯 매끄럽고 자연스럽다”라고 호평하였다.

양인모는 2015년 3월, 이탈리아 제노아에서 열린 제54회 프레미오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가 9년 만에 배출한 우승자이기도 하다. 당시 심사위원장 파비오 루이지는 양인모에 대해 “직관적 능력이 뛰어난 음악가이다. 그의 파가니니는 매혹적이며 품위있다”라고 말하였다. 우승과 더불어 최연소 결선 진출자상, 현대 작품 최고 연주상, 청중상 등 각종 특별상을 동시에 휩쓴 그는, 부상으로 파가니니가 생전에 사용한 악기 파르네리(일 캐노네)로 리사이틀을 가졌다.

2014년 콘서트 아티스트 길드 콩쿠르 우승 후, 카네기홀 와일 홀 데뷔 무대를 가진 양인모는 보스턴 심포니홀, 라비니아 뮤직 페스티벌, 말보로 뮤직 페스티벌 등 미국 주요 무대에 진출하여 음악성을 인정받았다. 양인모는 파비오 루이지, 네메 예르비, 정명훈, 오스모 벤스케, 제임스 개피건, 마린 알솅 등 세계적인 명성의 지휘자들과 함께 프랑스 국립 교향악단,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 취리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덴마크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리치몬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카를로 펠리체 오케스트라, 서울시립교향악단 등과 협연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에는 프랑스 메츠 국립 오케스트라와의 한국 투어를 성황리에 마치고 시카고 심포니 협연과 더불어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올해의 예술가로 선정되어 3번의 협연 무대를 가졌다. 나아가 하반기에는 진은숙의 첫 번째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고 12월 28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더 위너스> 양인모, 이혁 meet 디토 오케스트라’를 통해 클래식 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2021년, 그는 도이치 그라모폰을 통해 [현의 유전학] 음반을 발표했다. 이는 2019년 발매한 그의 데뷔 앨범 파가니니 [24개의 카프리스](금호아트홀 공연 실황)에 이어 두 번째 음반이다.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최고 연주자과정의 유일한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양인모는, 미리암 프리드를 사사하며 졸업했고 현재 베를린에 거주하며 안티에 바이타스의 제자로 한스 아이슬러 음대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양인모는 시벨리우스 콩쿠르 우승의 부상으로 J & A 베어 재단(J & A Beare Foundation)과 베어 국제 바이올린 협회(Beare's International Violin Society)의 후원으로 토리노의 G.B. 과다니니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다.



CREDIA

피아니스트 김다솔

Dasol Kim Pianist

2021년 제16회 빈 베토벤 국제 피아노 콩쿠르 2위를 차지한 피아니스트 김다솔은 독일, 스위스,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솔리스트이자 실내악 음악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조금 늦은 나이에 피아니스트로서의 꿈을 품은 그는, 만 16세의 나이로 일본 나고야 국제음악콩쿠르 우승을 거머쥐었고 통영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준우승 및 오케스트라 특별상을 수상하며 순식간에 국제 무대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였다. 이후 미국 YCA 국제 오디션, 프랑스 에피날 국제 피아노 콩쿠르, 독일 키싱엔 클라비어올림프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하였고,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국제음악콩쿠르, 스위스 게자 안다 국제 피아노콩쿠르, 스위스 제네바 국제음악콩쿠르, 뮌헨 ARD 국제음악콩쿠르, 독일 슈만 국제음악콩쿠르 등 많은 해외 무대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데뷔 이후, 베토벤, 브람스, 슈만 등 독일 작곡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어린 나이에 청중을 감동시키며 유럽을 놀라게 했던 김다솔은 금호아트홀 첫 상주음악가로 선정되고, 이듬해 뉴욕 필하모닉 내한공연에서 협연하면서 본격적으로 국내 청중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만 18세 나이로 지휘자 미하엘 잔덜링과 함께 독일 전역 투어 연주를 가지며 음악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이어서 뉴욕 필하모닉,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 콘체르트 부다페스트 오케스트라, 포츠담 체임버 아카데미를 비롯한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꾸준히 무대에 올랐다. 함께 연주한 대표적인 지휘자로는 정명훈, 미하엘 잔덜링, 앨런 길버트, 데이비드 진먼, 로렌스 포스터, 마린 알습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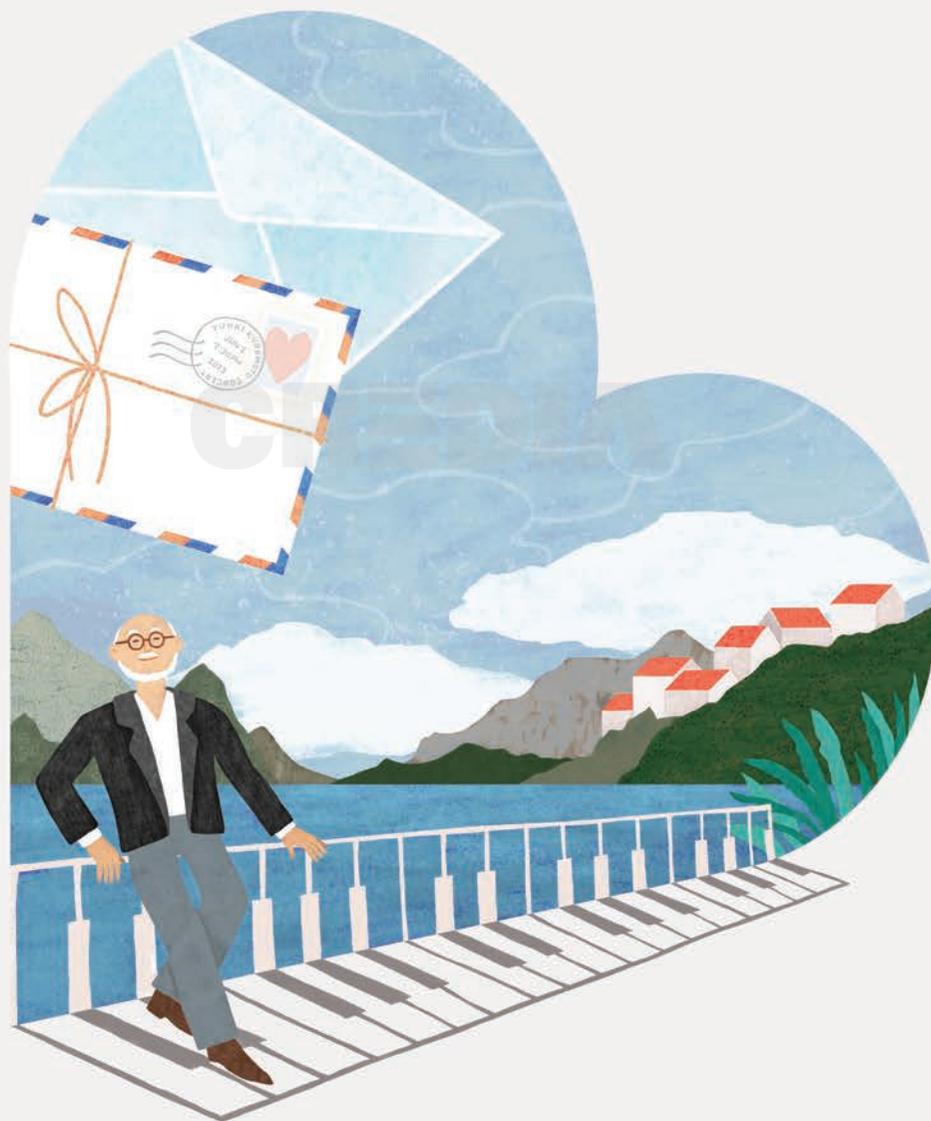
김다솔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스위스와 한국 등지에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선보였다. 또한 2021년부터 스위스 에르넨 음악제(Musikdorf Ernen Festival)의 실내악 프로그램 예술감독 및 트리오 마빈(Trio Marvin)의 멤버로서 실내악 연주자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금호 솔로이스츠 콘서트,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 평창 대관령 음악제, 핀란드 쿠호모 실내악 페스티벌, 독일 키싱엔 여름음악제, 스위스 에르넨 음악제 등 유수의 페스티벌에 매년 초청되어 다비드 게링가스, 로렌스 레서, 고티에 카뮈송, 스페틀린 루세브, 지안 왕 등의 음악가들과 함께 다채로운 실내악 레퍼토리를 선보이고 있다. 2023년 여름, 미국 말보로 뮤직 페스티벌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2015년, 작곡가 슈만의 작품을 담은 도이치 그라모폰 데뷔음반 [Dasol Kim plays Schumann]을 발매했던 그는, 2023년 슈베르트의 작품으로 두 번째 음반 발매를 준비 중에 있다.

김다솔은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의 아리에 바르디 교수를 사사하고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의 게랄드 파우트 교수를 사사했으며, 최근에는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에 초청받아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Dear Heart



출연: 유키 구라모토(피아노) 김지윤(바이올린) 이윤하(첼로) 한지은(플루트) 강신일(클라리넷)

2023.6.2(금) 7:30PM | 롯데콘서트홀

크레디아 클래식클럽 2023

삶에 [취향]이 필요할 때

✈️ BON VOYAGE

수요일의 새로운 즐거움, 여행 메이트를 소개합니다!



03.08
손태진
미드나잇 인 파리



04.05
한수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05.03
최성훈
비밀의 정원



06.07
조성현
블루노트 인 서울



09.06
홍진호 박현수
시네마 파라디소



10.04
대니구 신장용
심준호 박규민 신경식
화이트 나이트



11.08
전노
코지 판 투테



12.06
김태형 손정범
피아노 엑스트라바간자

한달에 한번 수요일 2시·8시 롯데콘서트홀 | 모든 좌석 38,000원

양인모 & 김다솔 듀오 리사이틀

CREDIA MUSIC & ARTISTS

이 프로그램은 Club BALCONY 후원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www.clubbalcony.com에서 공연을 예약한 후원회원에 한함]

www.credia.co.kr



CREDIA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클럽balconi닷컴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lub BALCONY.

www.clubbalcony.com